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선린교회의 소명      성경: 누가복음 10장 25-37절  
(Tag:교회,사명,신약성경,누가복음,사마리아사람,선한이웃)

25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26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27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28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29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30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31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32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 되

33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34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35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36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 이르되 자비를 베푸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눅10:25-37)

오늘은 선린교회가 설립된지 16년이 되는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다. 그동안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잘 깨닫고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다짐해 보자.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의 이름이 명명된 배경이 되는 말씀이다.

오늘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게 대한 이야기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탄생에 대한 배경 자체가 어떤 교훈을 준다.

당시에 많은 율법학자들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게 되는 무명의 어떤 율법학자는 대단히 명석하고, 핵심을 꿰뚫는 지혜가 있었으며, 나름대로의 행동철학과 소신이 분명한 사람이었다고 여겨지는 사람이었다.

오늘 말씀을 근간으로 볼 때, 그는 구약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질문을 예수님께 던짐으로 대화를 시작하고 있다.

구약 성경 전체를 두고 ‘영생’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대단히 주목할만한 것이다. 왜냐면 ‘영생’이라는 단어는 구약성경에서 매우 희귀하게 등장하는 단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단어는 주로 하나님께 적용되는 단어이지, 사람에게는 거의 적용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사람을 영원한 존재로 여기는 것에는 매우 주의 하였다는 것이다.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께서 자주 언급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생’에 대해서 풍문으로 들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그는 그 단어에 대해서 구약성경의 범주에서 연구하였다고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름대로의 결론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 하였을 것이다. 그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가를 보면서 예수님의 수준을 가늠할 계획이었을 것이다.

‘예수님 자꾸 ‘영생’, ‘천국’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영생의

핵심이 이거 아닙니까?’ 하고 확인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물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사실 이 질문 속에는 논리적인 모순이 담겨져 있다. ‘영생’이라는 단어 속에는 이미 절대적이고 영원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래서 성경은 ‘영생’이라는 단어를 오직 하나님께만 적용시키고 있다. 절대적이고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 이시기 때문이다.

반면 사람은 한계가 있고, 수명이 있다. 그러나 사람은 스스로 영원히 살 수 없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에게 생사화복이 달려있지 않다. 자기 스스로 자기의 DNA를 규정하거나, 계획할 수 있는 주권이 태생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스스로 자기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한계가 있다. 물론 무한한 가능성의 소유자인 것은 맞다. 다만 가능성이지 현실성이거나 실현성은 아니다. 가능성 자체를 부인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그 가능성에는 무엇을 하면 이루어지는가 보다는 누구의 도움을 받으면 이루어지는가가 핵심이다.

더구나 ‘영생’ 이라면 그 영생 자체가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인데, 사람이 무엇을 하면 그에게 ‘영생’ 이 주어진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다. 사람은 그 무엇을 아무리 하여도 ‘영생’ 을 얻을수는 없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태평양 한 가운데 빠져 있다고 생각해 보자. 당신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당신이 아주 유능하고 엄청난 괴력의 소유자이며 아주 건강해서 며칠을 버틸 수 있다고 치자. 그러면 태평양에서 살아날 수 있는가? 아니면 당신이 저 체온증으로 죽기 전에 누군가가 와서 당신을 구원해 주어야 하는가?

‘영생’ 이란 사람이 무엇을 행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영생’ 의 주관자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다. 그러면 질문은 이래야 한다. ‘누가 나에게 영생을 줍니까?’ 답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생을 주신다’ 이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물음에는 27절의 말씀이 맞는 답이다. 그러나 구약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누구를 통해서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이 영생에 관한 정확한 질문이며 그에 대한 답은 이렇다.

15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3:15-16)

아무튼 예수님은 묻는 율법학자의 마음속에 이미 답이 있다는 것을 아셨다. 그래서 되물으셨다.

...율법에 무엇이랴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리고 이미 그 율법학자는 해석까지 완벽하게 마쳤다는 것을 아시고 이렇게 물으셨다.

...네가 어떻게 읽느냐

명석한 율법학자는 주저함 없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였다.

27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모르긴 해도, 율법학자는 매우 힘있게, 그리고 자신감이 넘쳐서 또박 또박 정답을 말했을 것이다. 그는 확실히 구약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잘 간파하고 있었다. 그는 100점짜리 정답을 대답한 셈이다.

예수님도 그가 제시한 대답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자기가 물었던 질문에 대한 정확한 정답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율법학자는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았다. 왜냐면 그가 예수님께 따지고 싶었던 것은 사실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는 예수님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있지 않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소문대로라면 아무도 예수님과 변론을 해서 지식과 해석에서 예수님

보다 훌륭한 견해나 해석을 펼친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율법학자의 견해로서는 도무지 못마땅한 구석을 떨칠 수가 없었고, 그것 때문에 마음껏 예수님께 공감을 표하든지, 변호를 한다든지, 칭찬이나 칭송을 표현할 수 없었다.

아무도 예수님처럼 훌륭한 사람은 만나본 적이 없었다. 지식과 인품과 말투와 삶에서 아무런 흠을 잡을 수 없었다. 그러나 딱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주변 사람들에 관한 것이었다. 율법학자 생각에는 예수님은 결코 격에 걸맞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지 않았다고 여겼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율법학자나 바리새인이나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없었다. 예수님은 대부분 어부들을 제자로 삼았고, 심지어는 세리도 있었다. 직업이 불분명한 자들도 많았는데 사실은 열심당원(좋게 말하면 독립투사, 나쁘게 말하면 불순분자)들이 꽤 있었다. (사실은 대부분 열심당원들과는 친분이 있었다.)

그래서 제자들에 대한 평은 과히 좋지 않았다. 제자들은 대부분의 당시 바리새인들이 엄격하게 지키고 있던 여러 가지 율법들을 쉽게 어기는 경향이 있었고, 심지어는 공식 석상에서 거나하게 취했던 사건도 있어서 소문은 썩 좋지 않았다.

제자는 아닐지라도 예수님의 팬 클럽 수준의 사람들 중에는 심지어 창녀나 세리들까지 무수히 섞여 있었고 대단히 멸시함을 받던 사마리아인들까지 있었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동네를 거리낌 없이 지나다녔기 때문이었다. 당시에 사마리아에 대한 지역 감정은 대단히 나빴다. (역사적인 이유가 있다.)

그래서 대중적으로는 과히 문제 삼는 사람은 없었지만,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사회적인 점잖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꺼림칙한 일들이 아닐 수 없었다.

그들은 멀리 돌아갈지라도 결코 사마리아 사람들의 동네에는 발을 들여놓지 않았으며,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지키는 일에는 매우 신중하고 꼼꼼하게 지키는 편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일종의 자신감과 자랑스러움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삶의 스

타일을 고수하는 것에 대해서 일종의 독실한 신앙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사소한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방관하고, 거리낌 없이 잡스러운 자들로 여기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거리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율법학자는 이렇게 물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 물음에는 저의가 있다. 성경의 핵심을 잘 알고 있는 예수님 정신 차리세요. 저런 자들은 제자로 받아 들이시다니요. 그리고 성경을 잘 아신다는 분이 사마리아의 거리로 지나간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들은 이미 더럽혀진 자들입니다. 이단이나 다름이 없지요. 성경을 잘 아신다니 대답해 주십시오. ‘그럼 대체 당신의 이웃들은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향한 질문이다. ‘당신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세리, 갈릴리 사람, 사마리아 사람, 창녀들이 당신의 이웃입니까? 저런 무가치한 사람들을 당신의 몸처럼 사랑하고 위해주어야 한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이다.

아마도 당시 신문(?)에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실리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나의 추측이다. 왜냐면 이 말도 안되는 이야기에 대해서 율법학자가 꼬리를 내리고 순복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기 전에는 그토록 당당하고 자신감과 자부심이 대단했던 율법학자는 일순간에 백기를 들고 공손해졌다.

‘다름 아닌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자에게 그토록 잘해 주다니 듣도 보도 못했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고 반발할 수 있었을 텐데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왜일까? 아마도 실제로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만난자를 치료해 준 일이 있었고 이 율법학자도 그런 소문을 들었을 것이다. 물론 뉴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야기를 듣는 도중에 충분히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그냥 지나갔다는 말에는 공감이 갔다. 사실 당시에 강도를 만나는 일들은 빈번한 사건이었고,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결코 그런 자들에게는 자비를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율법주의는 아주 공공연히 비인간적인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서슴없이 행하고도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특징이 있다.

예수님은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그리고 일상적인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도 문제와 정답의 핵심은 엉뚱한 곳에 방점이 찍히고 있었다. 아마 당시 율법학자는 망치로 뒤통수를 맞는 기분이었을 것이다.

그는 예수님이 전혀 율법대로 살지 않고 꺼림칙한 사람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간단한 이야기 하나로 율법주의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어기며 살아가고 있는지가 들어났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단순히 왕을 졸 뒤에 숨기는 방법을 취하셨을 뿐이다. 그런데 그런 방법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정답을 뒤집어 놓을 수 있었는데, 사실은 그렇게 뒤집어 놓은 답이 진짜 정답이라는 것이 핵심이다.

율법학자가 눈에 불을 켜고 다그쳤던 내용은 ‘우리 율법학자들의 이웃은 누구인가요? 우리 유대인들의 이웃은 누구인가요?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이웃은 누구인가요? 예수여 당신의 진정한 이웃은 누구인가요?’ 였다.

그런데 예수님은 갑자기 율법학자에게 물었다. ‘강도만난자의 이웃은 누구인가?’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라. 이웃이 절실하게 필요한 자는 사실 강도만난자가 아니냐? 네가 강도를 만나 죽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아라. 그때 너에게 이웃은 누구이겠느냐? 율법도 내려놓고, 애국심도 내려놓고, 지역감정도 내려놓고 한번 생각해 보아라. 누군가 강도 만났다면 너는 어떻게 하겠니? 하나님은 심지어 안식일에 소나 나귀가 구덩

이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하셨니.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짐승을 구덩이에서 건져 내라고 하시지 않았니?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 비록 짐승이라도 그가 구덩이에 빠져서 안식일이 지나기까지 거기 갇혀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은 그가 비록 짐승일지라도 그에게 자비를 베푸라는 것 아니니? 그 날이 설령 안식일이라도 그래서 땀나고 힘든일은 하지 말아야 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곤경에 처한 짐승을 도와 땀을 흘리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닌 이유는, 자비를 베푸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이 아니니? 그가 비록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해도 당장 강도를 만나 죽어가고 있는데 그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당연하지 않니? 짐승에게도 자비를 베풀어야 하지 않겠어, 하물며 사람인데 당연히 자비를 베풀어야 하지 않니?

율법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율법정신이니? 사람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율법정신이 아니겠니?

아무튼 원래의 질문은 ‘영생’ 이었는데, 결론은 ‘이웃’ 이 되었다. 이것이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다. 이웃을 사랑함이 영생의 조건이 아니라, 영생을 얻음에 대한 증거가 이웃 사랑이기 때문이다.

적어도 선린교회 교인이라면 선린교회 교인됨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바로 이와 같아야 한다. 아멘.

<찬양예배>

제목: 전도전략    말씀: 누가복음 10장 1-24절 (tag:)

1 그 후에 주께서 따로 칠십 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2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3 같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4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5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6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7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8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9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10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11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12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13 화 있을진저 고라신아, 화 있을진저 벳새디아,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움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14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건디기 쉬우리라

15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16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17 칠십 인이 기뻐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18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 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19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20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21 그 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22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23 제자들을 돌아 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24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눅10:1-24)

1. 둘씩 앞서 보내심

-연합전선.

-앞서 보내심. 예수님보다 앞서 보내심. 예비케 하심. 세례요한-예수님 예비전법. -교역자 소개 전법. 두명이 세례요한 역할. 적어도 두명 이상은 선전해야 효과적.

## 2. 추수꾼 파병 요청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주인은 하나님, 추수할 일꾼들은 천사들. 꿈에서 환상에서, 일상의 사건들을 통해서 천사들이 일하게 하라. 어떻게 기도함으로.

-결코 기도를 먼저하고 둘씩 앞서 가는 것을 나중에 하지 말고. 둘씩 먼저 앞서 가면서 파병 요청 기도를 하라. 순서 명심.

## 3. 어린양 컨셉으로

(어린양 컨셉의 의미

-위험하니 조심하라.

-이리들이지만 담대하라.

-어린양이 승리한다. 조롱이나, 핍박이나, 무관심을 건강하게 대처하라.)

## 4. 문안하지 말라

4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않으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전도할 때는 전도하는 일에 집중하라.

-의식주나 기타 다른 주제에게 핵심을 놓치지 말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스타일로 문화를 변화시켜가는 것은 중요함.

-그런 문화적인 삶이 적어도 모범적이 되어야 한다.

## 5. 영적 사역을 하라.

-축복, 치유, 선포

- 네 스스로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라. 복의 근원이 되어라.
- 너 때문에 그들에게 유익이 증가되게 하라.
- 그들을 유익하게 함으로 그들로부터 공급을 받으라.